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 현보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하 정 화

이 논문을 최현보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 현 보

최현보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 원 장

김 혜 린



부 위 원 장

강 상 경



위 원

하 정 화



국문초록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현보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한 노년기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의 중요 내적자원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노화불안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주목하여 그 관계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완충역할을 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광주 지역의 5구에 위치한 7개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배부된 350개의 설문지 중 347개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으며,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그리고 조사 대상자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285개가 최종 위계적 회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노인의 노화불안 수준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

여여부와 참여수준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와 참여수준에 따라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이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은 활동이론과 사회적 붕괴이론(Social breakdown theory)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노화불안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경험하는 노화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참여여부와 참여수준(참여빈도, 1회 참여시간) 모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그 참여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는 참여수준 중 참여빈도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정적인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노인의 높은 노화불안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제의식과 논의를 활성화하는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방안 탐색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선정하여 그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후속 연구에 하나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의와 함의에도 불구하고

횡단연구 방식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연구의 대상이 광주지역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져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노인, 노화불안, 자기효능감, 자원봉사, 조절효과

학번: 2011-23152

- 목 차 -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절 연구문제	6
제 2장. 이론적 배경	7
제 1절 개념적 정의	7
1. 노화와 노화불안	7
2. 노인의 자기효능감	9
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11
제 2절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6
1. 이론적 논의	16
2.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	17
제 3절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 ...	22
1. 이론적 논의	22
2. 노인의 자원봉사와 자기효능감	24
3.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원봉사의 조절효과	26
제 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제 1절 연구모형	31
제 2절 연구가설	32
제 4장. 연구 방법	33
제 1절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33
제 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4
1. 독립변수: 노화불안	34
2. 조절변수: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35
3. 종속변수: 자기효능감	36

4.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36
제 3절 자료 분석 방법	38
제 5장. 연구 결과	40
제 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0
제 2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44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44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48
제 3절 가설 검증	52
1.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53
2.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여부와 참여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56
3.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원봉사의 조절효과 검증	62
 제 6장. 결론	 68
제 1절 분석결과 요약	68
제 2절 논의	72
1.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72
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73
3.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조절효과	74
제 3절 연구의 함의	78
1. 이론적 함의	78
2. 실천적 · 정책적 함의	79
제 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83
 • 참고문헌	 85
• 부록: 설문지	93
• ABSTRACT	101

- 표 차 례 -

<표 IV-1> 설문지의 구성	34
<표 IV-2>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	39
<표 V-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0
<표 V-2> 노화불안 기술통계	44
<표 V-3> 노화불안 요인별 기술통계	45
<표 V-4> 자원봉사 참여여부 기술통계	47
<표 V-5> 자원봉사 참여수준 기술통계	47
<표 V-6> 자기효능감 기술통계	48
<표 V-7> 변수 간 상관관계	51
<표 V-8>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55
<표 V-9> 노인의 자원봉사참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61
<표 V-10>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원봉사의 조절효과	67
<표 VI-1> 연구결과의 요약	71

- 그림 차례 -

<그림 Ⅲ-1> 연구모형.....	31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노화는 개인의 노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 능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현대 사회의 경제적인 성장과 의료 기술의 발달 그리고 위생·보건 환경의 개선 등은 노인의 평균 수명 연장을 야기하였고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12년 11.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 2030년 24.3%, 2050년에는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2). 따라서 앞으로 인간이 노화를 경험하는 기간과 노인인구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은퇴에 따른 역할 상실 그리고 배우자 및 지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 등은 노인에게 심리적·정서적인 불안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영향은 개인에게 있어서 긍정적일 수도 혹은 부정적일 수 있다(김신미·김순이, 2009). 따라서 긍정적인 즉,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화를 경험하기 위하여 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노화를 경험하고 있거나 하게 될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개인의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노년기에 대한 욕구와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관심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었다. 따라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대처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관련 연구들 또한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노화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적응과 변화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최성재 · 장인협, 2002).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의미 또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서은주, 2009). 하지만 젊고 역동적인 측면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현대 사회와 노인의 4고(질병, 빈곤, 소외, 무위)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높아가는 노인 부양비에 대한 조령 등은 이러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이미지를 자아실현, 지혜로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약하고 의존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강해자, 2012; 신순옥, 2012; 이유리, 2009).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회적으로나 노인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편견을 형성하고 낙인이 되어 노인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더욱 증가 시킨다(Harris & Clancy Dollinger, 2003; McConatha, Schnell, Volkwein, Riley & Leach, 2003; 최순옥 외, 2008 재인용).

노화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즉, 노화불안은 노화와 불안이 결합된 용어로, 노화과정과 관련되어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걱정과 불안상태를 의미한다. 자신의 노화과정과 관련된 두려움과 상태로서 늙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김신미 · 김순이, 2008; Lasher & Faulkender, 1993; Wakins, Coates, & Ferroni, 1998), 최근 사회에 팽배한 외모지상주의(Lookism)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혹은 젊어 보이기 위한 성형수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사회 노화불안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당한 노화불안 수준은 노후준비를 촉진하는 요인이지만, 지나친 수준의 노화불안은 노인의 삶의 질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강해자, 2012; 김신미 · 김순이, 2008; Lasher & Faulkender, 1993). 따라서 노인의 노년기 삶을 이해하고 건강한 노화를 영위하기 위해서 노화불안이나 노화 관련 태도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역시 노화 불안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넘어선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최근에서야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노화불안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회적 높은 관심으로 점차 그 연구가 노화불안과 노인의 삶의 관계에 대한 연구(강해자, 2012; 김신미 외, 2009; 김순이 · 이정인, 2007; 신순옥, 2012; 신학진, 2012, 임은경, 2012; 조진희, 2013), 노화불안에 미치는 요인과 그 관계에 관한 연구(기노진, 2012; 김명신, 2009; 김신미 외, 2008; 김순이, 2005; 김화선 · 최은정 · 양정남, 2009; 박현숙, 2009; 성지영, 2011; 장휘숙, 2012; 전미경, 2013, 최순옥 외, 2008; 최혜지 · 정순둘, 2012), 국가 간 노화불안 비교 연구(김옥, 2010; 양교웅, 2012)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화불안이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 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화불안이 개인의 노년기 삶에 어떠한 과정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년기는 노인에게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수용 그리고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과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은 노인의 노년기 삶의 질적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강해자, 2012; 김신미 · 김순이, 2008; 서은주, 2009; 신동민, 2012; 조진희, 2013). 성공적인 노화 및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와 관련 요인으로 건강상태(김미혜 · 신경림, 2005; Baltes & Baltes, 1990), 자기효능감(김춘길 외, 2001; Baltes & Baltes, 1990), 사회활동(Horgas, Wilms, Baltes & Baltes, 1998; Rowe & Kahn, 1997), 대인관계(성혜영 · 유정현, 2002; Ryff, 1989), 경제적 상태(강인, 2003; 김미혜 · 신경림, 2005; 성혜영 외, 2002; 조해경, 2002; Baltes & Baltes, 1990)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

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Bandura, 1986), 노년기의 도전과 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인생 후기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 측면과 강점관점에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중요한 내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노화불안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하고 긍정적인 노년기의 진입과 향유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신미와 김순이(2008)의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노화불안의 중년 성인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Fries & Crapo(1981)는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저하되는 것은 실제적인 기능 저하에 의해서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결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젊음과 관련한 특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구성된 편견이나 낙인 또는 노인 자신이 겪는 변화에 의한 높은 노화불안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여 노인 자신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노인은 노년기의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김신미·김순이, 2008).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노화불안과 요인간의 상관관계나 노화불안과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나 노년기 삶의 질에 관련한 영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요인들이 노화불안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즉,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는 존재하지만, 노화불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완충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노인의 노년기를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요인의 하나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노인자원봉

사활동의 역할과 영향을 바탕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그 자체로도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Treaff(1985)는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유용함을 자각할 수 있게 해주고 소외감을 없애주며 의사소통의 기회와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류기형 외(1999)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의 감소, 노인들의 역할 제한을 경험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로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성원으로 자부심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조휘일·정재훈·원미순·박윤숙, 2009). 또한 허준수(2011)의 노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노인이 참여하지 않은 노인보다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 밖에도 많은 연구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 역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노인의 자원봉사가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자원봉사 관련 대부분의 연구가 자원봉사를 단순히 독립변수로만 설정하여 진행되었고 노인자원봉사활동의 명확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효과를 본 연구에서도 자원봉사가 아닌 사회적 참여활동으로 조절변수를 설정하거나 성공적 노화나 삶의 만족과 같은 큰 틀에서 이루어져 노인자원봉사활동의 명확한 효과를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서비스 제공과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활동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조절요인으로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또한 단순히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여부의 영향 검증만이 아닌 자원봉사 참여수준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박경숙(2012)과 같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진 다양한 요인 중 노인 자신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자주 참여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빈도와 얼마나 몰입하여 활동하였는지를 의미할 수 있는 강도로서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에 대한 봉사기간을 선정하였다. 변수가 가지는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각각 투입하였고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수준에 따른 각각의 영향력을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노인들의 적응을 위한 중요한 내적자원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마련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노인의 노화불안 수준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와 참여수준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와 참여수준에 따라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제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개념적 정의

1. 노화와 노화불안

노화란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유기체의 점진적인 변화라 할 수 있으며(Beaver, 1983; 최성재·장인협, 2002 재인용),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에서의 노화는 인간이 출생하여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 전체의 한 부분으로(최성재·장인협, 2002), 과거에는 생물학적인 신체구조나 기능상의 변화 과정으로써 정의되었으나, 점차 심리, 사회적인 측면으로의 적용이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어 최근에 노화에 대한 정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정의되고 있다(조진희, 2013).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의 기관이나 체계의 구조 및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면역력 감소로 인한 감염, 고혈압 등의 질환 발생, 피부탄력 감소, 근 유연성 감소 등 이 있고 심리적 노화는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을 통해 행동, 감각, 지각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은퇴 및 의미 있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 불안증, 우울증 등의 경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는 생활주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 가지 면의 노화는 개인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개인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개인 간 및 개인 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서은주, 2009; 최성재·장인협, 2002).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노화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야기하여 퇴행과 같은 부정적 변

화의 의미 뿐만 아닌 긍정적 변화 의미 또한 포함하게 되었다(서은주, 2009).

노화불안은 ‘노화’와 ‘불안’이 결합된 용어로, 심리적, 신체적인 건강과 경제에 대한 불안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힘의 상실 차원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Lasher & Faulkender, 1993). 즉, 개인의 개별적인 노화과정과 관련된 두려움과 상태로서 늙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및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근심이나 두려움을 의미하며(Lynch, 2000; Wakins, Coates, & Ferrni, 1998), 노화과정과 관련한 예측 가능한 염려가 나타난 불안상태로 현재보다는 미래중심적인 의미라 할 수 있다(Tallis et al., 1991; 김순이, 2005 재인용).

노화와 관련한 불안은 이렇듯 노화과정과 관련하여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현상과 관련한 다차원의 개념으로, 노년학에서의 심리적인 안녕과 죽음불안과는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개념이다(김옥, 2010).

노화불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Lasher 와 Faulkender(1993)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노화불안을 3가지의 구체적인 두려움과 4가지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3가지의 구체적인 두려움으로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며, 첫째,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노화과정과 관련된 두려움이고 둘째,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편견에서 비롯된 과정이 아닌 상태에 대한 두려움, 셋째,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두려움이다. 또한 노화불안의 4가지 차원으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외모에 대한 걱정, 심리적 불안정을 제시한다(최순옥 외, 2008).

첫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노화불안 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나이가 들면서 개인은 떠나버리거나 잃게 될 무엇인가에 대해 불안을 갖는다. 이 요인은 심리적 걱정보다는 좀 더 외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친구 관계, 신체적 건강, 의사결

정권, 타인으로 부터의 존경 등이 해당된다. 둘째, 심리적 불안정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내적인 문제에 대한 초점을 갖는다. 개인이 노화에 좀 더 긍정적으로 적응을 하기 위해 당면해야할 심리적인 과제를 나타낸다. Erikson의 심리사회발달이론에서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한 발달과업으로 자아통합 대 절망에 대한 정신사회적 갈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인기도 하다. 셋째,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요인들과 달리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요인으로, 타인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노인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특성과 질을 사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노화나 노인에 대한 느낌이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Harris & Clancy Dollinger, 2003). 마지막 차원인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은 노화를 경험함에 따라 신체적 외모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신순옥, 2012; 최순옥 외, 2008). Lasher 와 Faulkender는 이러한 분류를 통해 노화가 다차원적인 영역을 포함하듯이 노화불안 또한 신체, 심리, 사회적 다차원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노인의 노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김순이,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을 미래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중재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서, Lasher 와 Faulkender(1993)의 4가지 차원을 가진 노인의 상태 및 노화과정과 관련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이미지로 정의하였다.

2. 노인의 자기효능감

모든 일은 임하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이하다.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마음가짐에 대한 개념으로,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모호하고 불확실성을 가진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개

인이 원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Rowe 와 Kahn(1997)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매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의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라 하였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개인이 가지는 자신감, 유능성 및 기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상황에 적응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의 원천을 과거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4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첫째, 과거 성공경험은 자기효능의 판단이 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과거의 성공했던 경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효능감은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실패했던 경험이 많다면 자기효능감은 많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면, 일시적으로 실패할지라도 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들은 감소된다. 둘째, 대리경험은 어떠한 행동의 과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과 정보에 따라서 효능판단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과제 수행 시 대리경험의 유사성, 속성, 수행에 따른 정도에 따라 긍정적으로는 성취욕구가 증가하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의 대리모델이 실패한 상황을 접하게 되면 오히려 의욕이 줄어들고 효능감 또한 낮아진다. 셋째, 언어적 설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료, 가족, 평가능력을 갖춘 타인으로부터 결과에 따른 기대감을 갖는다. 실제적인 경험이나 대리경험보다는 성공에 대한 기대 정도는 언어적인 방법으로 전달되기에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은 낮을 수 있지만 설득하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지위 그리고 지식 여부에 따라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넷째, 정서적 각성은 자신 스스로 불안을 일으키고 이러한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은 실제 상황보다 더욱 큰 불안을 경험하게 하여, 자기효능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박충배, 2011 재인용). 또한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신체적 자기효능감으로 분류된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란 전반적인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기능력에 대한 일반화된 신념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기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동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까지 필요한 의지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와 관련한다. 그리고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신체적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신체적 자기표현에 관한 자신감이다(이운복, 2011).

신체와 심리, 사회적인 기능은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지만, 노인이 됨에 따라 신체적 능력을 상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심리사회적인 기능의 수준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식이나 전문성의 획득을 통해 노인으로 하여금 신체적 능력 상실을 보상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그 결과 신체적 노화와는 관계 없이 자기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노인들이 삶의 질 또한 높다고 다수의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서은주, 2009; 신동민, 2012; 조진희, 2013; Batles & Baltes,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노년기 변화와 도전에 대한 중요한 내적자원으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의 성취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1) 노인의 여가활동

여가는 일반적으로 일과는 대응되는 개념으로 일에 비해 임의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지만 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며 연구되고 있다. 미국의 여가학자 Kaplan(1960)의 여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여가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기능과 대치되며, 즐거운

기대와 일로서 회상할 수 있는 것,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대한 자발성을 가지고 의무성은 최소한 행위 그리고 심리적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은 것 등으로 정의하였다(최성재·장인협, 2002 재인용). 한편 Gist와 Feva(1964)는 여가란 개인의 노동이나 그 밖의 의무적인 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긴장을 풀며 기분전환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성취가 가능하여 개인적인 발전 또한 이룰 수 있는 시간으로 정의하였다(안계일, 2008 재인용). 그리고 최성재와 장인협은 여가를 경제적 보상과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의무감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자유와 평화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의 시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여가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는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가는 일과는 대치되는 활동으로 최소한의 의무감을 가지고 기분전환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적인 발전까지도 이룰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 노인 여가활동의 의미와 유형

노년기는 대부분 은퇴로 인한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시기이고 노인들에게 있어서 여가는 자신의 생활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의 여가는 그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의미는 노인이 아닌 계층이 느끼는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노인도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앞으로의 성장 또한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노인 복지가 추구하는 목표와도 일치한다. 둘째, 현대사회에서의 노인이 느끼는 고독과 소외감은 그들에게 우울과 삶에 대한 의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고독과 소외감을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의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셋째

로 여가활동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노화와 관련한 질환이나 문제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동진, 2007).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인 개인의 개인적인 욕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역할 의 작용기제로써, 현대사회의 늘어나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고 노인 스스로의 자아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갖는다(김광득, 1997).

노인의 여가활동은 연구하는 연구자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김동진(2007)은 여가활동을 스포츠 및 신체활동, 학습활동, 문화 및 휴식활동, 가족중심적 활동, 종교 및 단체 활동 등 5가지로 분류하였고 김동배(2000)는 노인의 여가활동을 오락, 취미활동, 학습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노인의 여가활동은 참여 동기, 획득 가능한 심리적 이점, 참여유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3) 노인의 여가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

노인의 여가활동은 전술한 것처럼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노인의 여가활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노인들에게 사회참여를 제안한다. 사회참여는 그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회활동은 공동체 활동 또는 이를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담당 및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표현하는 활동이며, 봉사활동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이다.(원석조, 2009)

자원봉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의미하며 개인적, 사회적 활동모두를 일컫는다. 하지만 자원봉사의 의미가 자원봉사를 둘러싸고 있는 금전적 보상 문제나 사회적 책임성의 문제 그리고 자발성과 강제성 등 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합의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

지는 않다(조휘일 외, 2009). 미국사회사업가협회(1995)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영향을 예방, 통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며, 영국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으로 무보수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나 직접적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직접적인 보상 없이 국가나 기관에 의한 의무적이지 않은 자유선택에 따른 수행 활동으로 정의하였다(Sheard, 1995; 이형만, 2011 재인용). 또한 김동배(2005)는 자원봉사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로써 어느 특정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활동이며,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이라 규정하였다. 이처럼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는 학자나 기관마다 그 정의가 조금씩 상이하지만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특성과 최근의 논의와 관련한 점을 종합했을 때, 자원봉사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 요구와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이나 기본적인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 행위자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인의 자원봉사가 기존의 단순한 형태에 머무르지 않고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직접 취재를 통한 노인 신문 발간, 노인교육음악프로그램을 통한 노래와 악기연주를 학습하고 밴드나 합창단 공연, 기관에서의 컴퓨터 수업 이수 후 다른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업 진행과 건강체조 수업 등 보다 노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세부적이고 다양화 되고 있다.

자원봉사는 그 정의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효과성과 필요성에는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자원봉사의 효과와 더불어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층의 증가와 노인의 여가시간 증대, 건강수준 향상, 그리고 사회 정책적으로 노인 유희인력에 대한 적극적 활용 노력 등은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높아지게 하고 있다(류기형 외, 1999). 이러한 관심의 증가로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한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따른 자원

봉사 자체의 영향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한 성실성 그리고 헌신 등 참여수준에 따른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자원봉사는 일반적인 자원봉사의 특성처럼 기본 특성을 가지는데, 첫째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쌍방향성이 있다. 자원봉사를 행하는 측과 받는 측의 상하관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노력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양면성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행하는 측과 받는 측이 고정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닌 받는 측이 주는 측이 될 수도 혹은 주는 측이 받는 측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는다. 셋째, 노인자원봉사의 치료성, 치료성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노인은 자신의 심신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조성이 있다. 자조성은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 간에 집단을 형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자조적 집단행동을 할 수 있으면 문제해결의 주도권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노인들의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조휘일 외, 2009). 하지만 보건복지부 노인자원봉사 실태조사(2009)의 연령대별 자원봉사 참여비율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참여율은 2005년도 16.5%에서 2008년 15.6%로 60대 이상 연령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그다지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중 연령 구성 비율을 보더라도 60세 이상의 비율은 2004년부터 2007년 까지 약 10% 정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08년도에는 다소 낮은 비율로 떨어졌다. 또한 전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1999년, 14%→2008년 20%) 노인의 비율은 큰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아직까지 그 참여율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의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정의와 특성 그리고 최근의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어가는 여러 자원봉사 형태를 바탕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노인이 주체가 되어 경제적 이익

이나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제 2절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앞서 제 1절에서는 본 연구의 변수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 2절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

1. 이론적 논의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붕괴이론(Social breakdown theory)을 통해 접근하였다.

사회적 붕괴이론은 Kuypers 와 Bengtson(1973)에 의해 제창된 이론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에서의 다양한 삶의 변화는 노인으로 하여금 역할 상실과 지지집단의 부족과 같은 사회적·심리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은 취약성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한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노인 개인에게는 부정적 자기인지를 강화시킨다. 그 결과 노인은 스스로의 능력과 기술에 대해 효능감을 상실하여 사회적인 관계와 형성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무능력자라는 자기낙인을 경험하게 되고 노인들의 취약성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순환적인 틀로서 노인에게 작용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붕괴 이론은 생산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대중매체가 발전된 현대 사회에서 노년기의 변화를 경험하는 노인들이 겪는 문제점을 설명하는데 유

용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최성재·장인협, 2002).

사회적 붕괴이론 측면에서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면, 노인은 노년기에 정년으로 인한 은퇴, 가족 내에서의 지위변화 등을 통해서 역할상실, 역할변화, 사회적 지지세력 약화 등을 경험한다. 그 결과 노인은 상실감과 우울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즉, 노화불안을 형성하게 된다. 노화불안은 노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취약성으로 작용되고 사회적으로 대중매체 등을 통한 노인에 대한 ‘문제 있는 사람’, ‘의존적’, ‘쓸모없는’ 등의 부정적 인식은 낙인이 되어 노인의 노화불안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에 따라 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 또한 쓸모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노인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과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자기효능감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2.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

노화불안은 전술한 것처럼, 개인의 노화과정과 관련된 두려움과 상태로서 늙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및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근심이나 두려움을 의미한다(Lynch, 2000; Wakins, Coates, & 1998).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90년대 후반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Harris 와 Clancy Dollinger(2003)는 연구를 통해 노화불안이 노화과정의 적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신미와 김순이(2009)의 연구에서는 노화불안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또한 강해자(2012)는 노화불안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노화불안이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신순옥(2012)

역시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노화불안이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과 김화선 외(2009)의 노화인지에 따른 노화불안이 삶의 방식이나 기회를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은 모두 연구의 방법과 접근은 다르지만 노화불안이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젊음과 관련한 특성 및 생산성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과거 전통사회에 존재했던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약화 되었다(김옥, 2010). 따라서 발달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통합해 완성해 간다는 노화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약하고 의존적이며 매력이 없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었다. 다양한 매체에서의 외상 노인, 늙어난 노인인구로 인한 노인부양비에 대한 조명, 최근의 몸짱 열풍과 외모지상주의(Lookism)의 강화 등은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심화시키고 있다(이현지, 2011).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젊어지고자 혹은 노화를 늦추고자 거부하려는 반응은 노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화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기인한 우리 사회 노화불안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적당한 수준의 노화불안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촉진하는 자극이 된다는 점에서 적당한 노화불안 수준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김옥, 2010; Lasher et al., 1993). 하지만 높은 수준의 노화불안은 자신의 노화와 노화과정 적응에 대한 태도와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노화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하게 될 노인의 삶의 질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작용요인이 된다(강해자, 2012; 김신미·김순이, 2008; Lasher & Faulkender, 1993).

우리나라 노화불안과 관련한 연구경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노화불안과 성공적인 노화나 노인의 삶의 관계에 대한 연구(강해자, 2012; 김신미 외, 2009; 김순이 외, 2007; 신순옥, 2012; 신학진,

2012, 임은경, 2012; 조진희, 2013), 노화불안에 미치는 요인이나 관계에 관한 연구(기노진, 2012; 김명신, 2009; 김신미 외, 2008; 김순이, 2005; 김화선 외, 2009; 박현숙, 2009; 성지영, 2011; 장휘숙, 2012; 전미경, 2013, 최순옥 외, 2008; 최혜지 외, 2012), 국가 간 노화불안 비교 연구(김옥, 2010; 양교웅, 2012) 등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노화불안이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 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연구되어져 왔으나, 노화불안이 개인의 노년기 삶에 어떠한 과정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를 대처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노년기는 노인으로 하여금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이나 변화, 사회적 기반집단 약화, 신체적 능력 감소 등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노년기간 동안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인이 적응하고 새로운 인생의 후반기를 설계하고 도전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 측면이나 만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기존 노인의 삶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많은 요인들이 연구되어왔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로 사회활동(Baltes & Baltes, 1990; Rowe & Kahn, 1997), 자기효능감(김춘길 외, 2001; Baltes & Baltes, 1990), 대인관계(성혜영 외, 2002; 조진희, 2013; Ryff, 1989), 경제적 안정(강 인, 2003; 성혜영 외, 2002; 조진희, 2013; Baltes & Baltes, 1990) 등이 주요요인으로 연구되었고 이 중 경제적 안정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어져 왔다. 물론 경제적 요인은 노년기의 삶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소득보장 등의 측면을 집중하고 제한하는 것은 노화가 가지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노인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에서도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안정 측면과 함께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하다. 노년기는 도전과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평균 수명연장으로 노년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도전과 적응 그리고 강점관점 측면에서 노인이 가진 내적자원으로 자기효능감은 그 중요성을 갖는다(조진희, 2013).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능성 및 기대로 앞서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atles 와 Baltes(1990)는 중·노년기의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를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인생전체를 성공적으로 기능하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신동민, 2012 재인용), 서은주(2009)와 조진희(2013)의 관련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활동 정도와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노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춘길 외(2001)의 연구에서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노인이 삶의 질에 있어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밝혔다.

앞서 소개된 선행연구에서처럼, 노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어왔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서비스 제공과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일부 김순이 외(2007)의 노화불안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나 김신미 외(2008)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처럼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상관관계 수준에 머물렀을 뿐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에 있어 영향을 주는 두 변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노인이 경험하는 도전과 변화에 노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 받고 적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진행 하였다.

노화불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Lasher와 Faulkender(1993)는 그의 연구를 통해 노인이 은퇴나, 배우자 죽음등과 같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인에 대한 태도 즉, 상실감, 노인에 대한 이미지, 심리적 불안정 등이 노화불안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이

겪는 다양한 상실과 현대사회의 젊음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강화된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그릇된 편견 등은 노인의 불안 수준을 높이고 결국 노인 스스로 지각하는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김옥, 2010; Harris & Clancy Dollinger, 2003). 이는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를 연구한 이현지(2011)의 노인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화과정을 경험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방어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가지게 된다는 주장과도 일치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실감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이미지는 높은 노화불안을 설명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을 낮추게 될 것이다. Bandura의 자기효능감의 근원으로 제시한 대리경험과 성공 또는 실패 경험 측면에서 바라보면, 노인이 경험해온 노화경험 중 신체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상실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측면의 경험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매체나 주변의 노인들을 통해 접한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대리경험은 높은 노화불안을 보이게 할 것이고 낮은 자기효능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정미경(2010)의 노년기의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실경험은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Levy 와 Langer(1994)의 부정적인 노인과 관련한 고정관념에 노출된 노인들이 낮은 자기효능감을 보인다는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붕괴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형성된 노인들의 높은 노화불안은 노인 자신의 능력과 이에 대한 믿음 즉,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정하고 이러한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3절 노인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

1. 이론적 논의

노인의 노년기 사회참여와 관련한 이론은 활동이론, 지속이론, 역할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조절효과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위해 활동이론과 앞서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전술된 사회적 붕괴 이론을 통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

활동이론은 사회구조 내에서 노인의 지위와 이와 관련된 역할 및 활동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노인의 활동과 만족감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정립한 이론이다(김동배, 2012a). 활동이론에서 역할은 자아개념에 매우 중요하며 노년기에는 역할상실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갖는다(주경희, 2010). 따라서 노년기에 들어서도 노인들은 중년시절처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또 정년퇴직으로 잃어버린 역할을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며, 이 같은 지속적인 활동은 결과적으로 노인의 삶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본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의 참여 정도와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바탕으로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활동 참여가 제약을 받으면, 자아평가에 위기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이나 사회적 만족감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활동 이론의 주요 골자이다(Havighurst, 1961; 최성재·장인협, 2002 재인용). 따라서 활동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재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고 활동이 친밀하고 많을수록 역할지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된다. 그리고 역할지지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결국 긍정적인 자아상은 생활만족도를 높게 유지하게 된다(최성재 · 장인협, 2002).

활동이론을 통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바라보면,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참여는 노인에게 있어 은퇴나 다른 사유에 인한 역할상실로 제한되었던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된다. 자원봉사활동은 상실감에 대한 지지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적 접촉이 가능한 활동이므로 이러한 사회참여 활동인 자원봉사활동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자아상에 영향을 주고 긍정적 지지기반을 형성하여 자신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이론은 노인자원봉사가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사회적 붕괴이론에 따르면, 노년기 적응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상실감이나 부정적 인식은 사회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노인에게 낙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노인 자신도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나 자신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Kuypers 와 Bengtson(1973)은 이러한 상실로 인한 두려움이나 사회적 낙인 그리고 스스로의 부정적 인지, 3자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노인 자신이 능력이 있고 쓸모 있으며 힘이 있다는 스스로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이로 인해 노인들이 부정적인 낙인을 극복하게 된다면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최성재 · 장인협, 2002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노인에게 새로운 활동과 역할을 부여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역할지지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통해 낙인에서 벗어나고 노인의 노년기의 적응과 도전에 있어서 중요한 내적자원인 자기효능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활동이론과 사회적 붕괴이론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강조하는 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노인이 노년기 적응을 위한 하나의 대안적인 활동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나아가 노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상실감과 사회적으로 강화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 스스로 가지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 즉, 노화불안이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노인의 자원봉사와 자기효능감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앞서 사회참여 성격을 지닌 여가활동 중 하나로, 노인이 주체가 되어 경제적 이익이나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아직까지 그 참여율이 높지는 않지만,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노인의 건강수준이 계속 향상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그 가능성은 높게 평가된다.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노인자원봉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배진희(2006)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고, 김창석(2011)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은 노년기 삶의 만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이형만(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처럼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이 노인의 삶의 만족이나 안녕에 갖는 긍정적인 영향은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에 의해 축적 되어왔다. 그리

고 현재 사회에 노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나 노년기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구체적인 노인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노년기의 노인에게 적응과 도전을 위한 중요한 심리사회적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효능감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과 노년기 삶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정훈(2012)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연구하면서 노인의 자원봉사가 노인이 가지는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으며, 허준수(2011) 또한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것을 보고 하였다. 박준성과 정태연(2012)은 중·노년기의 봉사활동과 삶의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 효능감을 매개변수로 넣어 중·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영섭(2005)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결과가 분석되었고 김동배(2012b) 역시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참여 관련 연구에서 노인의 활동적 사회참여가 활발할 수록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이러한 직접적 연구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뒷받침 된다. 자기효능감은 노인의 삶의 만족이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삶의 만족, 성공적 노화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지표로써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그 관계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다.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와 노인의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활동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된 박경숙(2012)의 노인전문자원봉사활동과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유무와 횟수, 기간 등이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자기효능감을 삶의 질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이형만(2011)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정도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3.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원봉사의 조절효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앞서 축적된 선행연구를 통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자원봉사를 단순히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만 설정되어 노인자원봉사활동의 명확한 효과를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몇몇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특성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신원우(2011)는 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원봉사활동참여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안준희와 김승용(2009)은 이미지와 자아통합감의 관계에 사회적 활동 참여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연구하였다.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사회적 참여를 투입하거나 성공적 노화나 삶의 만족도와 같은 큰 틀에서 이루어져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명확한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노인자원봉사가 조절변수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설정하였다.

아직 노화불안과 관련한 연구가 제한적이지만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의의 및 관련 이론들을 통해서 이를 추론 할 수 있다. 우선 활동이론과 사회적 붕괴론의 이론적 접근에 따르면 노인은 은퇴, 배우자 죽음 등의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고 지지기반의 약화로 인한 사회적 지지 감소, 소외 등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형성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낙인이 되고 소외와 상실감 등을 더욱 크게 하여 노인 스스로 인지하는 자신의 모습 또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은 그들이 그동안 경험을 통해 획득하였던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유용성이나 자신감에도 회의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자신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떨어지게 한다. 하지만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참여는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되어 현대 사회에서 노인이 겪고 있는 상실감, 소외, 사회적 지지 그리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노년기의 노인의 은퇴나 배우자 상실과 같은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과는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은 크게 두 가지 즉,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의를 가지는데, 개인적인 의의로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첫째, 은퇴로 인해 상실되었던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준다는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중년기에 느꼈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상실되었던 “나”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은퇴 이후 사회적 참여에서 벗어나 상실되었던 자신의 사회적 가치성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 노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가치를 갖게 한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데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데 아쉬움을 가졌던

노인에게 심리적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세 번째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는 노년기에 있어서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자존심을 유지 및 향상 시키도록 해준다. 노인에게 퇴직은 직업상의 지위 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되어 가졌던 여러 가지 지위의 상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자아상과 자존심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번째로 소외감을 극복하는데 유익한 영향을 준다. 퇴직과 역할의 변화는 노인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퇴직을 통해 노인은 사회에서 퇴장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소외당하는 감정을 갖을 수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은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섯 번째로, 자기성장과 자아실현을 돕고 창의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단순히 끝을 향해가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성장하여 자기성취와 자기성장에 대한 욕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자원봉사는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일의 수행을 위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책임성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최성재·장인협, 2002).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노화 또는 노인에 대한 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무능력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어떠한 기능은 아직도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회활동으로서 건강하게 사회를 위해 일하는 모습은 노화와 노화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노인 스스로 인지하는 자신의 이미지도 새롭고 긍정적으로 만든다. 많은 노인이 자기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인지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자신을 낙인찍음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활동에 대해

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은 그 자체가 가지는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긍정적인 가치로 노인 자신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인 변화로의 전환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지식과 기술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고 사회 발전 및 개선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한다(최성재·장인협, 2002). 따라서 이러한 노인 자원봉사의 의의 측면에서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경험하는 상실과 변화 속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스스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의의를 통한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완충역할은 자원봉사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 된다. Musick & Wilson(2003)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처럼(신원우, 2011 재인용), 자원봉사는 사회적인 지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 시킬 수 있고 상실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신원우, 2011),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아이미지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안준희와 김승용(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가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고 김상대(2009)는 노인의 활동성 여가 참여와 상실감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활동성 여가가 상실감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허준수(2011)는 노년기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노인들의 정신적·심리적 및 인지면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서 신체적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신원우(2011)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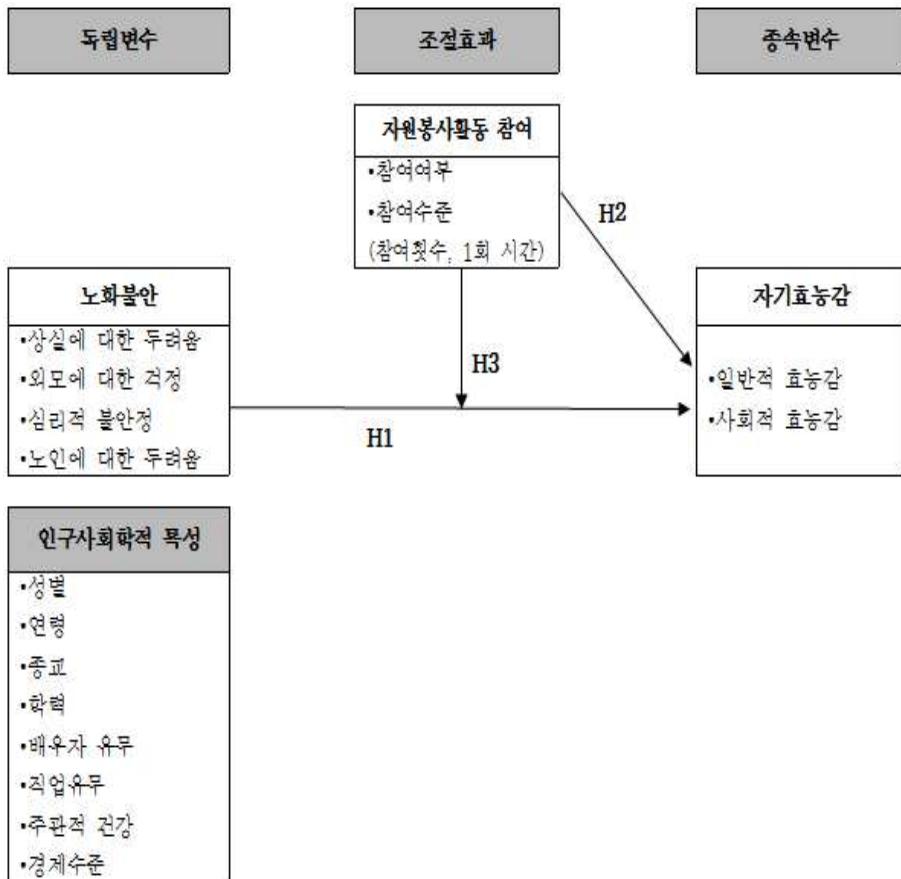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여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활동이론을 바탕으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단순 참여여부 뿐만 아니라 류정란(2002)과 박경숙(2012) 그리고 James Nazroo와 Katey Matthews(2012) 등 의 연구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성실함과 헌신을 측정하기 위하여 참여수준을 함께 진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노화의 과정에서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 노인의 단순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뿐만 아니라 참여수준도 함께 분석하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성실함과 헌신이 이러한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 III-1> 연구모형

제 2절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노화불안 수준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노인의 노화불안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와 참여수준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것이다.

연구가설 2-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1회 참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와 참여수준에 따라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연구가설 3-1.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감소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될 것이다.

연구가설 3-3.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원봉사활동 1회 참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될 것이다.

제4장. 연구 방법

제 1절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광주 지역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350명이며, 광주 5구에 위치한 7개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절차는 광주지역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연구자가 설문참여에 동의한 기관 및 노인을 대상으로 서베이 형식의 양적조사방법을 통해 수집하였다. 참여자는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고 자기보고식 응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설명을 제공하여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화불안,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기효능감의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완성된 설문지는 참여자가 작성 후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배부된 350개의 설문지중 347개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으며,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그리고 조사대상자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285개가 최종 회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IV-1> 설문지의 구성

구분	조사항목	문항 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종교,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동거 유형, 동거인 수, 가정월 소득, 주관적 경제수준, 직업 유무	12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원봉사 참여유무, 자원봉사 참여빈도,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 자원봉사 기간	4
노화불안	노화불안 척도	20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	23

제 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노화불안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을 노인의 상태 및 과정과 관련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정의 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노화불안 척도는 Lasher & Faulkender(1993)의 AAS(Anxiety about Aging Scale) 척도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긍정 13문항, 부정 7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긍정적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실제 설문지 *표시는 삭제). 일부 문항에서는 질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더”를 추가하였으며, 척도는 상실에 대한 불안,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안정, 외모에 대한 걱정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노화불안 정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1, 아니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기입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개발당시 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6이고 한국노인과 미국노인의 노화불안에 대해 연구한 김옥(2010)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 값은 .84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775로 분석되었다.

2. 조절변수: 노인 자원봉사활동참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학자들의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정의와 특성 그리고 최근의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어가는 여러 자원봉사 형태를 바탕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노인이 주체가 되어 경제적 이익이나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조절변수로서 자원봉사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자원봉사 단순 참여여부 뿐만 아니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성실함과 헌신을 측정하기 위한 참여수준 또한 구성하였다.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참여하는 경우 1로, 하지 않을 경우 2로 기입하였고 분석 시 용이함을 위해 '0' 과 '1' 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수준은 참여빈도와 1회 활동시간 그리고 활동기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① 월 1회, ② 월 2회, ③ 주 1회, ④주 2 ~ 3회, ⑤ 주 4회 이상, ⑥ 기타 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0' 으로 입력하였다. ⑥기타 응답의 내용이 "많이", "자주"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 5번으로 변환하였다.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은 ① 1시간, ② 2시간, ③ 3시간 이상, ④기타로 응답되며 자원봉사 미 참여시 "0" 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설문지 회수 결과, 활동기간의 경우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졌으나 응답 결과, 왜도와 첨도와 관련하여 절대값 4.84와 29.32로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log변환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다수의 무응답과 일관성 없는 기입으로 인한 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또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 시에 제외되었다.

3. 종속 변수: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Sherer, Maddux, Mecandante, Perntice-Dunn, Jacobs와 Rogers등 (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신영화(199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설문지 첨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으로 나눌 수 있다.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여 분석에 반영한다(실제 설문지 *표시는 삭제). 모두 "전혀 아니다"에 1, "매우 그렇다"에 5를 응답하도록 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영화(1999)의 연구에서 전체 검사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6의 높은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805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통제 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 제시된 성별, 연령, 종교, 학력, 배우자 유무, 직업 유무, 주관적 건강, 소득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2로 그리고 연령은 노인이 직접 기입 하도록 되어있다. 종교는 없음,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로 측정되지만 분석 시 종교유무로 변환되어 사용되었다.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참여자가 모두 응답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배우자는 미혼, 기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로 기입하였고 분석 시에 배우자 유무로 변환되어 진행되었다. 직업유무는 직업이 있음

은 1, 없는 경우 2로 기입하고 주관적 건강 수준은 매우 나쁘다=1, 나쁘다=2, 보통이다=3, 좋다=4, 매우 좋다=5 로 구분하였다. 소득은 주관적 경제 수준과 객관적 경제수준으로 구분하였고, 주관적 경제 수준은 매우 어렵다=1, 약간 어렵다=2, 그저 그렇다=3, 별로 어렵지 않다=4, 전혀 어렵지 않다=5로 측정되었다. 동거유형의 경우 혼자, 배우자와 함께, 자식들과만 함께,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분석 시에는 동거자 유무로 변환하여 사용되었다. 객관적 경제수준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된 소득 기입으로, 객관적 경제수준의 가구소득은 참여자인 노인의 특성에 따라 동거인 수를 고려해 변환할 예정이 있었으나 이 문항에 대한 결측치가 상대적으로 많고 응답의 일관성도 의심이 되어 분석 시에 사용되지 않고 경제 관련 요인으로는 주관적 경제 수준만이 사용되었다.

제 3절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화불안, 자기효능감 및 자원봉사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 및 백분율, 평균, 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통제변수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설 검증에 있어 노인의 노화불안과 노인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참여여부와 참여수준의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으며, 참여수준의 경우 자원봉사참여빈도와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으로 나누어 두 변수를 각각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인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노화불안과 조절변수인 자원봉사참여여부, 참여빈도 그리고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 간의 Mean centering을 한 상호작용항을 만들었으며, 각 모형에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2>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

	Model 1	Model 2-A	Model 2-B	Model 3-A	Model 3-B
통제변수	통제변수	통제변수	통제변수	통제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	노화불안	노화불안	노화불안	노화불안	노화불안
조절변수		자원봉사 참여여부			
			자원봉사 참여수준 (참여빈도, 1회 시간)		
상호작용항				노화불안 x 자원봉사 참여여부	
					노화불안 x 자원봉사 참여수준 (참여빈도, 1회 시간)

제5장. 연구 결과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광주지역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V-1>과 같다.

<표 V-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20)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
성별	남	142	44.4
	여	178	55.6
연령	65~69	101	31.6
	70~74	102	31.9
	75~79	81	25.3
	80~84	31	9.7
	85세 이상	5	1.6
결혼 상태	미혼	1	.3
	기혼	227	70.9
	사별	77	24.1
	별거	6	1.9
	기타	9	2.8
종교	무	69	21.6
	기독교	82	25.6
	불교	70	21.9
	천주교	80	25.0
	기타	19	5.9
최종 학력	무학	14	4.4
	초등학교 중퇴	29	9.1
	초등학교 졸업	40	12.5

	중학교 중퇴	31	9.7
	중학교 졸업	46	14.4
	고등학교 중퇴	21	6.6
	고등학교 졸업	75	23.4
	대학교 중퇴	10	3.1
	대학교 졸업 이상	54	16.9
건강 상태	매우 나쁘다	4	1.3
	나쁘다	51	15.9
	보통이다	159	49.7
	좋다	83	25.9
	매우 좋다	22	6.9
동거 유형	혼자	74	23.1
	배우자와 함께	188	58.8
	자식들과만 함께	14	4.4
	배우자와 자녀 함께	35	10.9
	기타	9	2.8
주관적 경제수 준	매우 어렵다	45	14.1
	약간 어렵다	78	24.4
	그저 그렇다	110	34.4
	별로 어렵지 않다	70	21.9
	전혀 어렵지 않다	17	5.3
직업 유무	유	50	15.6
	무	270	84.4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무응답과 무성의를 제외한 전체 응답자 320명 가운데 남성이 142명(44.4%), 여성은 178명(55.6%)으로 여성이 좀 더 많았고, 연령은 70~74세가 102명(3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5~69세가 101명(31.6%), 75~79세는 81명(25.3%), 80~84세는 31명(9.7%) 그리고 85세 이상은 5명(1.6%)으로 가장 적게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72.58세로 나타났다.

결혼상태 관련 특성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기혼은 227명

(7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별이 77명(24.1%)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타응답이 9명(2.8%), 별거가 6명(1.9%) 그리고 미혼이 1명(.3%)으로 나타났다. 종교 관련 특성으로는 기독교가 82명(25.6%), 천주교 80명(25%), 불교 70명(21.9%), 무교 69명(21.6%) 그리고 유교를 포함한 기타 응답 19명(5.9%) 순으로 응답되었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75명(23.4%)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이상이 54명(16.9%), 중학교 졸업이 46명(14.4%), 초등학교 졸업 40명(12.5%)으로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중학교 중퇴, 초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무학 그리고 대학교 중퇴가 각각 31명(9.7%), 29명(9.1%), 21명(6.6%), 14명(4.4%), 10명(3.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 수준과 관련해서는 ‘보통이다’가 159명(49.7%)으로 과반수를 넘어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그 외의 응답으로는 ‘좋다’ 83명(25.9%), ‘나쁘다’ 51명(15.9%), ‘매우 좋다’ 22명(6.9%) 그리고 ‘매우 나쁘다’ 4명(1.3%)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 유형으로는 ‘배우자와 함께’가 188명(58.8%)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혼자’가 74명(23.1%)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라는 응답이 35명(10.9%), ‘자식들과만 함께’ 14명(4.4%) 그리고 ‘자녀와 손자들과 산다’는 응답을 포함한 기타응답이 9명(2.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스스로 느끼는 경제수준관련 특성에서는 응답자의 34.4%인 110명이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별로 어렵지 않다’와 ‘약간 어렵다’라는 응답이 각각 70명(21.9%)과 78명(24.4%)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매우 어렵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4.1%를, ‘전혀 어렵지 않다’의 응답이 17명(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 관련 특성에서는 응답자의 84.4%인 270명이 직업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명(15.6%)만이 현재
작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제2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수로는 독립변수인 노화불안과 조절 변수인 자원봉사참여여부와 자원봉사참여수준과 관련한 자원봉사 참여빈도, 자원봉사 1회 시간 그리고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 총 5 가지이다. 각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왜도, 첨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독립변수: 노화불안 기술통계

우선 본 연구의 노화불안 기술통계에 사용된 사례수는 무응답과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한 306명이다. 독립변수인 노화불안은 총 20 문항, 각 문항당 1점부터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어 20점에서 10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노화불안의 평균값은 53.88점, 표준편차값은 8.07로 나타났고 참여자 중 최소값은 25점이며 최대값은 75점으로 분석되었다. 노화불안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살펴보면, 왜도 .44, 첨도 .16으로 분석되어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그리고 첨도의 절대값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인 노화불안의 분포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2> 노화불안 기술통계

(N=30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노화불안 총 점수	53.88	8.07	25	75	-.44	.16
노화불안 평균점수	2.69	.40	1.25	3.75	-.44	.16

노화불안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를 위해 노화불안 점수를 평균으로 변환한 값은 2.69점으로 김옥(2010)의 한국노인과 미국노인의 노화불안 비교연구에서의 60세이상 노인의 노화불안 점수인 2.90점($SD=0.45$)보다는 다소 낮은 노화불안점수를 보였다. 이는 김옥(2010) 연구에서의 노인 대상자 표집이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주거 시설도 포함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의 비교적 활동성이 높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데에서 오는 결과라고 추측된다.

<표 V-3> 노화불안 요인별 기술통계

노화불안 요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노인에 대한 두려움	2.43	.58	1.00	5.00	.42	.72
심리적 불안정	2.64	.55	1.20	4.20	.09	-.16
외모에 대한 걱정	2.66	.55	1.00	4.40	-.19	.37
상실에 대한 두려움	3.06	.67	1.00	4.80	-.19	-.43

응답 노인의 노화불안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3.06($SD=.67$)으로 요인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에 대한 걱정’ 2.66($SD=.55$), ‘심리적 불안정’은 2.64($SD=.55$)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2.43($SD=.58$)로 요인 중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화선 외(2009)의 연구에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3.11($SD=.77$), ‘외모에 대한 걱정’ 2.98($SD=.94$), ‘노인에 대한 두려움’ 2.77($SD=.77$) 그리고 ‘심리적 불안정’ 2.20($SD=.67$)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조절변수: 자원봉사 참여여부 & 참여수준

노인 자원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한 본 연구의 첫 번째 조절변수인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1. 참여함’ 과 ‘2. 참여하지 않음’ 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코딩 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0=참여하지 않음’ 과 ‘1=참여함’ 으로 변환하였다. 무응답과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한 전체 응답노인 320명 중 현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20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은 116명으로 36.2%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원우(2011)의 연구에서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응답율이 2.3%과 상당히 차이나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이 상대적으로 더 움직임에 제약이 없고 활동적인 것에 기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최근 광주지역의 정신보건 시범 사업의 영향으로 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기관에서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재능기부형식의 자원봉사 활동이 증가하는데 기인하는 결과로 추측된다.

자원봉사참여수준과 관련한 변수 중 두 번째 조절변수인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319명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① 월 1회, ② 월 2회, ③ 주 1회, ④주 2 ~ 3회, ⑤ 주 4회 이상, ⑥ 기타 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0’ 으로 입력하였다. ⑥기타 응답의 경우 내용이 “많이”, “자주”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 ⑤으로 변환하였다. 평균은 1.89이며, 표준편차는 1.73으로 분석되었다. 최소값은 0, 최대값은 5이고 왜도와 첨도와 모두 왜도절대값 3미만 그리고 첨도 절대값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인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조절변수인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은 ① 1시간, ② 2시

간, ③ 3시간 이상, ④기타로 응답되어 있으며 평균은 1.44, 표준편차는 1.26으로 분석되었고 최소값은 0 그리고 최대값은 3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319명이며, 1회 참여시간 또한 자원봉사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0”으로, ④기타 응답의 경우 ③으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그리고 왜도와 첨도 모두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4> 자원봉사 참여여부 기술통계

(N=320)

변수		빈도	백분율
자원봉사 참여여부	참여함	204	63.8
	참여안함	116	36.2

<표 V-5> 자원봉사 참여수준 기술통계

(N=319)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자원봉사 참여빈도	1.89	1.73	0	5	.31	-1.11

(N=319)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자원봉사 1회시간	1.44	1.26	0	3	.052	-1.66

3) 종속변수: 자기효능감 기술통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의 기술통계 분석에는 총 291명이 사용되었으며, 문항은 총 23문항으로 각 문항당 1점부터 5점까

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는 23점에서 11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노인의 자기효능감 평균은 79.31점, 표준편차는 8.24이며, 참여자 중 최소값은 51점이고 최대값은 100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정규성 확인을 위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왜도 절대값은 $-.19$, 첨도는 $.26$ 으로 분석되어 왜도와 첨도 모두 절대값이 3과 10미만으로 분석되어 종속변수 자기효능감의 분포가 정규성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6> 자기효능감 기술통계

(N=29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자기효능감	79.31	8.24	51	100	$-.189$	$.262$
자기효능감 평균점수	3.45	$.36$	2.22	4.35	$-.189$	$.262$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가설 검증에 앞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V-7>와 같이 분석되었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간 상관계수가 0.8이상일 때 발생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상관계수가 모두 0.8 이하로 나타나 주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큼 높은 상관계수는 나타나지 않

았다. 조절변수인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참여빈도 그리고 1회 참여 시간 사이에서 상관관계가 0.9에 가깝게 나타나지만 이 변수들이 분석 시에 함께 투입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본 결과, 주요변수들의 VIF값이 모두 10을 넘지 않게 분석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독립변수인 노화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는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성별, 최종학력,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수준, 결혼상태, 동거유무, 자원봉사참여여부, 자원봉사 참여빈도, 자원봉사 1회 시간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노화불안과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들 간에 부적관계($r = -.578, p < .001$)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조절변수인 자원봉사참여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성별, 최종학력, 건강상태, 직업 그리고 노화불안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절변수 자원봉사참여여부와 종속변수 자기효능감에는 정적관계($r = .333, p < .0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를 참여하는 상태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절변수인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성별, 최종학력, 건강상태, 직업, 노화불안과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자기효능감과는 정적관계($r = .275, p < .001$)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원봉사빈도가 증가하면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1회시간은 성별, 최종학력, 건강상태, 직업, 결혼상태, 동거자 유무와 노화불안 그리고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과는 정적관계

($r=.296$, $p<.001$)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 ($r=-.147$, $p<.05$)과 직업($r=-.122$, $p<.05$)의 경우 부적관계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r=.212$, $p<.001$), 건강상태($r=.277$, $p<.001$), 주관적 경제수준($r=.221$, $p<.001$), 결혼상태($r=.138$, $p<.05$), 그리고 동거유무($r=.218$, $p<.001$)는 정적관계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종학력이 높아지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인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혼과 동거자가 있는 상태일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성별	연령	최종 학력	건강 상태	주관적 경제 수준	직업 유무	결혼 상태	동거 유무	종교	노화 불안	자원봉사 참여여부	자원봉사 참여빈도	자원봉사 1회시간	자기 효능감
성별	1													
연령	-.308**	1												
최종 학력	-.455**	-.088	1											
건강 상태	-.164**	-.080	.212**	1										
주관적 경제수준	-.157**	-.134*	.366**	.171**	1									
직업 유무	.014	.033	-.048	-.179**	-.071	1								
결혼 상태	-.310**	-.134*	.302**	.143**	.229**	.000	1							
동거 유무	-.251**	-.151**	.321**	.121*	.225**	-.032	.708**	1						
종교	-.009	-.080	.073	.034	.050	-.121*	.104	.109	1					
노화 불안	.189**	.065	-.183**	-.353**	-.298**	.069	-.188**	-.178**	-.084	1				
자원봉사 참여여부	-.124*	-.018	.181**	.255**	-.013	-.163**	.074	.064	.079	-.216**	1			
자원봉사 참여빈도	-.129*	.000	.169**	.213**	.037	-.157**	.039	.044	.007	-.207**	.831**	1		
자원봉사 1회시간	-.146**	-.051	.199**	.217**	-.015	-.163**	.109*	.114*	.069	-.185**	.863**	.784**	1	
자기 효능감	-.147*	-.093	.212**	.277**	.221**	-.122*	.138*	.218**	.083	-.578**	.333**	.275**	.296**	1

*p<.05, **p<.001

제3절 가설 검증

앞서 2절에서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 수 있는데 하나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성별, 연령, 최종학력,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수준, 직업유무, 결혼상태, 종교, 동거자유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고 이 중 성별, 결혼상태, 종교, 직업유무, 종교, 동거자유무를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산점도와 히스토그램 그리고 Durbin-Watson통계량을 사용하여 오차의 등분산성 및 정규성 그리고 자기상관을 확인하였고 Durbin-Watson통계량의 수치는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H1)

본 절에서 첫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노화불안 수준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노인의 노화불안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아질 것이다.

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1]

$$Y = a + b_1D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D_8 + b_9D_9 + b_{10}X_{10} + e$$

Y: 자기효능감

D₁: 성별 (남=0, 여=1)

X₂: 연령

X₃: 최종학력

X₄: 건강상태

X₅: 주관적 경제수준

D₆: 직업유무 (직업 있음=1, 직업 없음=2)

D₇: 결혼상태 (미혼, 별거, 사별, 이혼, 기타=0, 기혼=1)

D₈: 종교 (종교 없음=0, 종교 있음=1)

D₉: 동거자유무 (동거자 없음=0, 동거자 있음=1)

X₁₀: 노화불안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V-8> 과 같다.

[모형 1]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로 노화불안을 투입한 모형으로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F 값은 15.891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344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모형 1>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노화불안이 종속변수의 자기효능감 변량의 34.4%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532$ 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김신미·김순이(2009)의 연구에서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서 부적관계가 존재함을 분석한 결과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주요 영향요인이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강해자(2012)의 연구에서 노인의 노화불안이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한편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든 통제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H1)

		모형 1		
		B	S.E	β
통제변수	성별	.003	.045	.004
	연령	-.003	.004	-.041
	최종학력	.009	.009	.058
	건강상태	.016	.023	.039
	주관적 경제수준	.005	.018	.016
	직업유무	-.066	.048	-.067
	결혼상태	-.060	.057	-.074
	종교	.024	.042	.028
	동거자유 무	.116	.062	.133
독립변수	노화불안(A)	-.466	.047	-.532***
상수		4.834		
R ²		.367		
Adjusted R ²		.344		
F		15.891***		

* p<.05, ** p<.01, *** p<.001

2.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여부와 참여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H2)

두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와 참여수준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것이다.

[연구가설 2-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1회 참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질 것이다.

위 [연구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2-1]

$$Y = a + b_1D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D_8 + b_9D_9 + b_{10}X_{10} + b_{11}D_{11} + e$$

Y: 자기효능감

D₁: 성별 (남=0, 여=1)

X₂: 연령

X₃: 최종학력

X₄: 건강상태

X₅: 주관적 경제수준

D₆: 직업유무 (직업 있음=1, 직업 없음=2)

D₇: 결혼상태 (나머지(미혼, 별거, 사별, 이혼, 기타)=0, 기혼=1)

D₈: 종교 (종교 없음=0, 종교 있음=1)

D₉: 동거자유무 (혼자=0, 동거자 있음=1)

X₁₀: 노화불안

D₁₁: 자원봉사 참여여부 (자원봉사 참여 안함=0, 자원봉사 참여 함=1)

[모형 2-1]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여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조절변수인 자원봉사참여여부를 투입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V-9> 와 같다.

[모형 2-2]

$$Y = a + b_1D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D_8 + b_9D_9 + b_{10}X_{10} + b_{11}X_{11} + e$$

Y: 자기효능감

D₁: 성별 (남=0, 여=1)

X₂: 연령

X₃: 최종학력

X₄: 건강상태

X₅: 주관적 경제수준

D₆: 직업유무 (직업 있음=1, 직업 없음=2)

D₇: 결혼상태 (나머지(미혼, 별거, 사별, 이혼, 기타)=0, 기혼=1)

D₈: 종교 (종교 없음=0, 종교 있음=1)

D₉: 동거자유무 (혼자=0, 동거자 있음=1)

X₁₀: 노화불안

X₁₁: 자원봉사참여 참여빈도

[모형 2-2]는 [연구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와 독

립변수인 노화불안과 두 번째 조절변수인 참여빈도를 투입한 모형으로 위 변수들을 투입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V-9> 와 같다.

[모형 2-3]

$$Y = a + b_1D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D_8 + b_9D_9 + b_{10}X_{10} + b_{11}X_{11} + e$$

Y: 자기효능감

D₁: 성별 (남=0, 여=1)

X₂: 연령

X₃: 최종학력

X₄: 건강상태

X₅: 주관적 경제수준

D₆: 직업유무 (직업 있음=1, 직업 없음=2)

D₇: 결혼상태 (나머지(미혼, 별거, 사별, 이혼, 기타)=0, 기혼=1)

D₈: 종교 (종교 없음=0, 종교 있음=1)

D₉: 동거자유무 (혼자=0, 동거자 있음=1)

X₁₀: 노화불안

X₁₁: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

[모형 2-3]은 [연구가설 2-3.]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노화불안과 두 번째 조절변수인 참여 1회 시간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V-9> 와 같다.

우선, 첫 번째 조절변수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투입한 **[모형 2-1]**을 살펴보면, 모형적합도는 F 값은 17.376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모형**

2-1]에 포함된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의 변량을 38.8%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력의 변화량은 .045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조절변수인 자원봉사참여여부를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모형 2-1]에서 동거자유무($\beta = .136$, $P < .05$)를 제외한 모든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노화불안과 조절변수인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여부의 경우,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beta = .232$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자체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고,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김동배, 2012b; 김창석, 2011; 박경숙, 2011; 박준성·정태연, 2012; 배진희, 2006; 이형만, 2011; 허준수, 2011; 현영섭, 2005).

따라서 [연구가설 2-1.]노인의 자원봉사참여함에 따라 자기효능감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두 번째 조절변수인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투입한 [모형 2-2]의 경우, 모형적합도는 F 값은 15.949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368로 이는 [모형 2-2]에 포함된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의 변량을 36.8%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력의 변화량은 .02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2-2]의 분석결과, 모든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노화불안과 조절변수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원봉사 참여빈도의 경우,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beta = .166$ 으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성실함

을 의미할 수 있는 참여빈도가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2-2.]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빈도가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을 투입한 [모형 2-3]의 경우, 모형적합도는 F 값은 16.532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이 모형의 설명력은 .376으로 분석되었다. 설명력의 변화량은 .0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2-3]의 분석결과, 모든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독립변수인 노화불안과 조절변수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의 경우,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beta = .198$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1회 시간이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2-3.] 노인의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이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V-9> 노인의 자원봉사참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H2)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B	S.E	β	B	S.E	β	B	S.E	β
통제변수	성별	.005	.043	.008	.006	.044	.008	.011	.044	.015
	연령	-.003	.004	-.042	-.003	.004	-.046	-.002	.004	-.032
	최종학력	.002	.009	.012	.004	.009	.026	.002	.009	.017
	건강상태	-.003	.022	-.007	.009	.023	.020	.003	.023	.008
	주관적 경제수준	.019	.018	.059	.010	.018	.030	.019	.018	.057
	직업유무	-.036	.047	-.037	-.041	.048	-.042	-.040	.048	-.041
	결혼상태	-.061	.055	-.076	-.051	.057	-.064	-.055	.056	-.068
	종교	.014	.041	.016	.027	.042	.031	.018	.041	.020
	동거자유무	.118	.060	.136*	.115	.061	.131	.103	.061	.124
독립변수	노화불안(A)	-.434	.046	-.496***	-.443	.047	-.506***	-.444	.047	-.506***
조절변수	자원봉사 참여여부(B)	.172	.038	.232***	—	—	—	—	—	—
	자원봉사 참여빈도(C)	—	—	—	.035	.011	.166**	—	—	—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D)	—	—	—	—	—	—	.056	.015	.198***
상수		4.647			4.707			4.631		
R ²		.412			.392			.401		
Adjusted R ²		.388			.368			.376		
R ² Change		.045***			.024**			.033***		
F		17.376***			15.949***			16.532***		

* p<.05, ** p<.01, *** p<.001

3.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원봉사의 조절효과 검증 (H3)

세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와 참여수준에 따라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연구가설 3-1.]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감소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될 것이다.

[연구가설 3-3.]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원봉사활동 1회 참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될 것이다.

위 [연구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3-1]

$$Y = a + b_1D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D_8 + b_9D_9 + b_{10}X_{10} + b_{11}D_{11} + b_{12}X_{12} + e$$

Y: 자기효능감

D₁: 성별 (남=0, 여=1)

X₂: 연령

X₃: 최종 학력

X₄: 건강상태

X₅: 주관적 경제수준

D₆: 직업유무 (직업 있음=1, 직업 없음=2)

D₇: 결혼상태 (나머지(미혼, 별거, 사별, 이혼, 기타)=0, 기혼=1)

D₈: 종교 (종교 없음=0, 종교 있음=1)

D₉: 동거자유무 (혼자=0, 동거자 있음=1)

X₁₀: 노화불안

D₁₁: 자원봉사 참여여부 (자원봉사 참여 안함=0, 자원봉사 참여 함=1)

X₁₂: 노화불안*자원봉사 참여여부

[모형 3-1]에서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자원봉사참여여부에 따라 변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조절변수인 자원봉사참여여부와 노화불안 그리고 노화불안과 자원봉사참여여부 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V-10> 과 같다. 조절효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위계적으로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R^2 변화량과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김태근, 2006). 또한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수를 평균 중심화한 점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모형 3-2]

$$Y = a + b_1D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D_8 + b_9D_9 + b_{10}X_{10} + b_{11}X_{11} + b_{12}X_{12} + e$$

Y: 자기효능감

D₁: 성별 (남=0, 여=1)

X₂: 연령

X₃: 최종학력

X₄: 건강상태

X₅: 주관적 경제수준

D₆: 직업유무 (직업 있음=1, 직업 없음=2)

D₇: 결혼상태 (나머지(미혼, 별거, 사별, 이혼, 기타)=0, 기혼=1)

D₈: 종교 (종교 없음=0, 종교 있음=1)

D₉: 동거자유무 (혼자=0, 동거자 있음=1)

X₁₀: 노화불안

X₁₁: 자원봉사 참여빈도

X₁₂: 노화불안*자원봉사 참여빈도

[모형 3-2]는 [연구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노화불안을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투입하고 노화불안과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으로 위 변수들을 투입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V-10> 와 같다.

[모형 3-3]

$$Y = a + b_1D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D_8 + b_9D_9 + b_{10}X_{10} + b_{11}X_{11} + b_{12}X_{12} + e$$

Y: 자기효능감

D₁: 성별 (남=0, 여=1)

X₂: 연령

X₃: 최종학력

X₄: 건강상태

X₅: 주관적 경제수준

D₆: 직업유무 (직업 있음=1, 직업 없음=2)
D₇: 결혼상태 (나머지(미혼, 별거, 사별, 이혼, 기타)=0, 기혼=1)
D₈: 종교 (종교 없음=0, 종교 있음=1)
D₉: 동거자유무 (혼자=0, 동거자 있음=1)
X₁₀: 노화불안
X₁₁: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
X₁₂: 노화불안*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

[모형 3-3]에서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변수인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과 노화불안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V-10> 과 같다.

첫 번째 조절변수 자원봉사 참여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3-1]**를 살펴보면, 모형적합도는 F 값은 16.299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393으로 **[모형 3-1]**에 포함된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의 변량을 39.3%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설명력의 변화량은 .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분석결과, **[모형 3-1]**에서 모든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노화불안과 조절변수인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3-1.]**노인의 자원봉사참여가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참여빈도와 노화불안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3-2]의 경우, 모형적합도는 F 값은 15.106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374로 분석되었다. 설명력의 변화량은 .00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자원봉사 참여빈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모형 3-2]의 분석결과, 모든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독립변수인 노화불안과 조절변수인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노화불안과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곱한 상호작용항이 $\beta = .160$ 으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3-2.]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과 노화불안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3-3]의 경우, 모형적합도는 F 값은 15.357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모형의 설명력은 .378로 분석되었다. 설명력의 변화량은 .004로 분석 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작용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3-3.]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원봉사활동 1회 참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V-10>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원봉사의 조절효과 (H3)

		모형 3-1			모형 3-2			모형 3-3		
		B	S.E	β	B	S.E	β	B	S.E	β
통제변수	성별	.001	.043	.001	-.001	.044	-.002	.008	.044	.011
	연령	-.003	.004	-.045	-.003	.004	-.047	-.002	.004	-.033
	최종학력	.002	.009	.012	.003	.009	.021	.002	.009	.014
	건강상태	-.005	.022	-.011	.006	.023	.015	.002	.023	.005
	주관적 경제수준	.021	.017	.064	.013	.018	.040	.020	.018	.061
	직업유무	-.030	.047	-.031	-.035	.048	-.036	-.031	.048	-.032
	결혼상태	-.058	.055	-.072	-.047	.056	-.058	-.051	.056	-.064
	종교	.001	.041	.001	.012	.042	.014	.010	.042	.012
독립변수	동거자유무	.107	.060	.124	.104	.061	.118	.099	.061	.113
	노화불안(A)	-.563	.087	-.643***	-.555	.074	-.634***	-.524	.075	-.599***
조절변수	자원봉사 참여여부(B)	.165	.038	.221***	—	—	—	—	—	—
	자원봉사 참여빈도(C)	—	—	—	.035	.010	.169**	—	—	—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D)	—	—	—	—	—	—	.057	.015	.200***
조절효과	A*B(참여여부)	.172	.099	.167	—	—	—	—	—	—
	A*C(참여빈도)	—	—	—	.052	.026	.160*	—	—	—
	A*D(1회 참여시간)	—	—	—	—	—	—	.050	.037	.112
상수		5.035			5.042			4.859		
R ²		.418			.401			.405		
Adjusted R ²		.393			.374			.378		
R ² Change		.006			.009*			004		
F		16.299***			15.106***			15.357***		

* p<.05, ** p<.01, *** p<.001

제6장. 결론

제1절 분석결과 요약

늘어나고 있는 노년기는 노인에게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수용 그리고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은 노인의 노년기 삶의 질적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밝히며(강해자, 2012; 김신미·김순이, 2008; 서은주, 2009; 신동민, 2012; 조진희, 2013),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고 있다(김춘길 외, 2001; Baltes & Baltes, 1990).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젊음과 관련한 특성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 그리고 노인 자신이 겪는 변화는 노인으로 하여금 높은 노화불안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결과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여 노인 자신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화불안이 노화과정의 적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높은 수준의 노화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 및 성공적인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해자, 2012; 김신미·김순이, 2008; 김화선 외, 2009; Harris & Clancy Dollinger, 2003; Lasher & Faulkender, 1993).

하지만 노인의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나아가 노년기 삶을 이해하고 건강한 노화를 영위하기 중요한 요인인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역시 노화 불안에 대한 연구는 노인의 높은 노화불안이 노인의 자기효능감 및 노년기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한 노년기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노인이 높은 노화불안을 경험할 때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광주지역 5개구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7곳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3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347개의 설문지 가운데 결측값과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한 총 285개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은 노인의 노화불안 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연구문제 2>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지에 대한 것으로 참여여부와 참여빈도 그리고 1회 참여시간 모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1], [연구가설 2-2.], [연구가설 2-3.] 모두 지지 되었다.

셋째, <연구문제 3>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빈도만이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3-2]만이 지지되었고 [연구가설3-1.], [연구가설3-3.]는 기각되었다.

〈표 VI-1〉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문제 1〉 노인의 노화불안 수준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노인의 노화불안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아질 것이다,	지지
---------	--------------------------------------	----

〈연구문제 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와 참여수준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것이다.	지지
연구가설 2-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질 것이다.	지지
연구가설 2-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1회 참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질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와 참여수준에 따라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연구가설 3-1.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감소될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3-2.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될 것이다.	지지
연구가설 3-3.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원봉사활동 1회 참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될 것이다.	기각

제2절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그 관계에서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연구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 장에서의 분석결과와 같이 노인의 노화불안이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감소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노화불안이 노화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노화불안을 구성하는 상실감과 심리적 불안정이 노인의 노년기의 삶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강해자, 2012; 김신미·김순이, 2009; 김옥, 2010; 신순옥, 2012; 정미경, 2010; Harris & Clancy Dollinger, 2003; Lasher & Faulkender, 1993; Levy & Langer, 1994).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연구와 자기효능감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만 다루어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인의 삶에 있어 영향을 주는 두 변수로써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본 실증적 검증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노화불안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의 노화불안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한 노년기를 도모하기 위

해서 노인의 노화불안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며 노화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이나 자원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노화불안 이외에 추가로 자원봉사활동관련 변수인 자원봉사참여여부, 자원봉사 참여빈도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1회 참여시간을 투입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노화불안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원봉사활동 관련 변수가 투입된 이후에는 노화불안을 통제하고도 자원봉사관련 변수인 참여여부, 참여빈도 그리고 1회 참여시간 모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노인의 노화불안의 경우 자원봉사관련 변수가 투입되더라도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자원봉사관련 변수 즉, 자원봉사참여여부, 참여빈도 그리고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의 주 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변수인 자원봉사참여여부의 경우, 자원봉사참여여부가 $\beta = .232 (p < .001)$ 로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가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자원봉사참여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번째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beta = .166 (p < .001)$ 으로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얼마나 성실히 참여하는지 즉, 참여빈도가 많아질수록 자기효능

감이 증가한다는 결과로 분석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노인의 자원봉사참여부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빈도가 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이형만(2011)과 박경숙(2012)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의 경우에도 $\beta = .198$ ($p < .001$)로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1회 참여시간이 많은 노인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이해될 수 있다. 즉, 노인의 1회 참여시간이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나 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형만(2011)의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참여수준(참여빈도, 1회 참여시간) 모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한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박준성·정태연, 2012; 이정훈, 2012; 허준수, 2011; 현영섭, 2005; 김동배, 2012b).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노년기 삶의 질적 향상과 적응에 중요 내적자원인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를 활용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3.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조절 효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요인으로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와 참여수준(참여빈도, 1회 참여시간)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완화요인으로서 자원봉사참여여부, 참여빈도 그리고 1회 참여시간 모두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자원봉사참여여부의 경우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수인 노화불안과 자원봉사참여여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단계에서 상호작용항과 R^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참여여부와 상관 없이 노화불안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자기효능감이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즉,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여부가 노화불안의 증가와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나온 자원봉사여부의 주 효과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하면, 노인의 자원봉사참여가 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단순히 자원봉사를 참여한다고만 해서 높은 노화불안 수준으로 인한 노인의 자기효능감 감소가 완화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자원봉사관련 다른 변수들을 살펴본 이후에 통합적으로 논의해보겠다.

두 번째, 자원봉사빈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화불안과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상호작용항과 R^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의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참여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노화불안 수준이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완화됨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빈도가 노화불안의 증가와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합하면,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빈도 증가가 자기효능감에 주효과로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높은 노화불안 수준으로 인한 노인의 자기효능감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독립변수인 노화불안과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단계에서 상호작용항과 R^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마찬가지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의 자원봉사1회 참여시간의 증가와 상관없이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노인의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의 증가가 효과적인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노인의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의 증가가 자기효능감에 주효과로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이 높은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노화불안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될 경우 노인의 자기효능감 감소가 완화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종합해보면,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여부와 참여수준(참여빈도, 1회 참여시간) 모두 직접적으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주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절효과에 관해서는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빈도만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1회 참여시간의 경우 완화하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활동참여 자체가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단순히 자원봉사 참여자체만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

고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한번 참여할 때 헌신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참여하는지는 분명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이지만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영향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노인 자신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자원봉사에 자주 참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제 3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가 지니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붕괴이론에 따르면, 노인이 경험하는 역할 상실과 지지집단의 부족과 같은 사회적·심리적인 문제는 노인들로 하여금 취약성을 가지게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낙인이 형성되고 노인 스스로는 부정적인 자기인지를 강화시킨다. 그 결과 노인 스스로의 효능감을 상실하게 된다. 즉, 노인이 경험하는 역할 상실과 지지집단 부족 등의 경험은 높은 노화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낮추어 노인의 노년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노화불안이 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에도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그동안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이 다루어져 왔다. 양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상관관계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을 성공적 노화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만 연구되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을 늘어나고 있는 노년기의 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붕괴이론을 바탕으로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여 보다 명확한 영향력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노인의 노화불안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며 노화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부정적인 영향

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과 자원을 활용하여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이에 대한 완충하는 조절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요인에 주목하였고 활동이론에 따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조절변수를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검증을 시도 하였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하나의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인 자원봉사활동 자체의 영향인 자원봉사의 참여여부만이 아닌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헌신을 자원봉사 참여빈도와 자원봉사 1회 참여시간이라는 추가적인 사항을 함께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논의에서 언급한 단순히 노인이 자원봉사를 참여만 하거나 오래하는 것보다 노인이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자주 참여하는 것이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노인의 인구비율이 높은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광주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5개구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연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증진 시켜 후속연구에 대한 한 단계 발전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실천적 ·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실천적 ·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노화불안의 경우 노년기의 삶의 질과 적응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노화불안은 자기효능감 뿐 아니라 노년기 삶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경험하는 노화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관련기관이나 교육기관 혹은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등에서 노화불안 예방프로그램이나 집단 활동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이루어져 노인들의 노화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노화불안이 우울과 자살과 같은 노인의 정신건강과 함께 사회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들의 자원봉사참여를 양적·질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과 자원봉사를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 간의 평균에 있어서도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낮았으며, 자기효능감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참여를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자신이 가진 자원의 유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인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노인의 노년기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노인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현재 실천현장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 지역사회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인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노인의 자원봉사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단순한 영역에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프로보노¹⁾ 형식의 자원봉사활동인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문화예술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홍보와 필요하다. 노인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 자신과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을 단순히 복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노인 스스로도 주체로서 인식을 하는 변화가 이루어져 수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보다는 보다 활동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에 대한 효과나 사례 등의 홍보를 통하여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한다. 그리고 홍보를 통한 긍정적인 노인 이미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대중매체에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기반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논의되었듯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주효과가 존재함과 더불어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빈도의 경우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에서 더 나가 노인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자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큰

1) 라틴어 ‘프로 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이다. 미국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프로 보노라고 칭하는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프로보노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원봉사와 차이점을 갖는다.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46601&cid=40942&categoryId=31611>
(2014. 4. 20 검색)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카드를 발부한다거나 서비스 이용 우선권 제공 등의 비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동기부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노인의 자원봉사가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이루어져 노인의 자원봉사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광주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연구 환경의 제한으로 인해 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조사에 일반적인 노인을 대표하다고 보기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이루어져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자원봉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 바탕으로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되었지만,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외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통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노화불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횡단연구의 한계로 그 효과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보는 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환경이 가능하다면 종단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횡단 연구로는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단연구를 통해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자원봉사의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최근에 정신보건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의 정서가 인지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가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노인이 가지는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본 연구에서는 투입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노인의 자원봉사 만족도가 활용될 경우 보다 폭 넓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자원봉사 관련 연구를 진행할 시 만족도와 같은 추가적인 자원봉사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면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영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를 위해 배포한 총 설문지는 350부로 그중 347부가 회수 되었다. 하지만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자료의 경우 285부로 많은 결측자료가 나왔는데 이 같은 현상은 노인들이 하기에는 설문지의 양이 다소 어렵거나 많아서 그럴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서 설문이 이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양 뿐 아니라 문항의 구조 그리고 응답환경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화불안척도가 서구에서 개발되어 다소 한국적 상황과 상이하거나 글의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제한성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보다 적합한 노화불안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인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완화하는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노인의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강 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95-116.
- 강해자(2012).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7, 191-220.
- 기노진(2012). 성인남성들의 죽음불안과 노화불안.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서대학교
- 김광득(1997). **여가와 현대사**. 서울: 백산출판사.
- 김동배(2000). **노년학의 이해: 노인과 자원봉사**. 서울: 대영문화사.
- _____(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학지사.
- _____(2012a). 노년기 자원봉사참여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7, 7-28.
- _____(2012b).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회, 32(1), 289-303.
- 김동진(2007).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활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명신(2009). 교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화지식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서대학교
- 김미혜·신경림(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5(2), 35-52.
- 김상대(2009). 노인의 활동성 여가참여가 사회적 역할상실감 및 삶의 질적 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레크레이션학회지, 33(3), 69-83.
- 김순이(2005). 일 지역 노인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교

- 육학회지, 11(1), 7-15.
- 김순이·이정인(2007).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4(1), 103-109.
- 김신미·김순이(2008).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281-291.
- _____ (2009). 노인의 노화불안과 삶의 질. 정신간호학회지 18(2), 207-218.
- 김 옥(2010). 한국노인과 미국노인의 노화불안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47, 71-94.
- 김창석(2011).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유형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청구논문. 호서대학교.
- 김춘길·장희정·김성실(2001). 일 지역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자기간호역량간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13(1), 40-52.
- 김태근(2006). **U-Can 회귀분석**. 인간과 복지.
- 김화선·최은정·양정남(2009). 노화사실인지정도와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135-165.
- 류기형 외 4명(1999). **자원봉사론**. 서울: 양서원.
- 류정란(2002). 노인자원봉사활동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박경숙(2012). 노인 전문 자원봉사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성대학교.
- 박준성 · 정태연(2012). 중·노년기의 봉사활동이 행복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과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32(2), 513-524.
- 박충배(2011).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희대학교.
- 박현숙(2009). 여고생의 노화지식 및 노화불안이 노인에 대한 태도

- 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서대학교.
- 배진희(2006). 노인의 차별경험과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 141-161.
- 보건복지부(2009). **노인자원봉사 실태조사**.
- 서은주(2009). 노인의 성공적 노화 구조모형.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희대학교.
-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소(2002).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책도집**. 서울: 나눔의 집.
- 성지영(2011).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호남대학교.
- 성혜영·유정현(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2(2), 75-93.
- 신동민(2012). 노인이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영성의 매개 및 조절 효과 검증. 노인복지연구, 57, 261-288.
- 신순옥(2012). 중년기 노화불안요인 탐색 및 노화불안과 노후준비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상당대학교학원대학교.
- 신영화(1999). 학대받는 아내의 능력고취를 위한 집단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신원우(2011).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와 생활만족간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4, 135-163.
- 신학진(2012). 한국중년의 노화불안요인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5, 33-64.
- 안계일(2008). 노인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기대학교.
- 안준희·김승용(2009).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아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적 참여의 조절효

- 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4), 1645-1663.
- 양교웅(2012).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태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서대학교.
- 원석조(2009).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도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원광대학교.
- 이유리(2009). 노인생애체험이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46, 193-214.
- 이윤복(2011). 노인의 종교성과 삶의 질에 따른 연구: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백석대학교.
- 이정훈(2012). 노인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결대학교.
- 이현지(2011).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발달: 대학생 및 노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형만(2011).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원대학교.
- 임은경(2012).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 노화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제대학교.
- 장휘숙(2012). 대학생과 노인의 노화불안과 특성불안 및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5(1), 1-18.
- 전미경(2013). 임상간호사의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태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양대학교.
- 정미경(2010). 노년기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상실경험과 자아통합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아주대학교.
- 조진희(2013).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 예측모형.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양대학교.
- 조해경(2002).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노인들의 성인학습을 통하여.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 조휘일·정재훈·원미순·박윤숙(2009). **자원봉사론**. 서울: 공동체.
- 주경희(2010). 사회참여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 성별과 연령차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최성재·장인협(2002).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순옥·김숙남·신경일·이정희(2008). 일부 지역 성인의 노후불안. 한국노년학회 28(1), 19-32.
- 최혜지·정순돌(2012). 노후불안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안: 지식과 태도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2), 91-116.
- 통계청(2012). **2012 고령자 통계**.
- 허준수(2011).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노인들의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4, 89-128.
- 현영섭(2005). 성인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관련학습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평생교육학 연구, 11(3), 55-77.

2. 국외 문헌

- Ba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Baltes, P. B., & Baltes, M. (1990). *Successful aging—perspective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aver, M. L. (1983). *Human Service Practice with the Elderl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ries, J. F., & Carpo, L. M. (1981). *Vitality and aging: Implications of the rectangular curve*. San Francisco: Freeman.
- Gist, N. P., & S. F. Feva. (1964). *Urban society*. 5th ed., New

- York: Thomas Y. Growell Co., Inc.
- Harris, L. A., & Clancy Dollinger, S. M.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nd anxiety about ag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4, 187–194.
- Horgas, A. L., Wilms, H., & Baltes, M. M.(1998). Daily life in very old age: Everyday activities as Expression of successful living. *The gerontologist*. 38, 556–568.
- James Nazroo & Katey Matthews(2012). *The impact of volunteering on well-being in later life*. Cardiff, UK: WRVS.
- Kaplan, M. (1960). *The Use of Leisure*. In C. Tibbitts(Ed.),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pp.407–44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ypers, J A. & Bengton, V. L.(1973). Social Breakdown and Competence: A Model of Normal Aging, *Human Development*, 16, 181–201.
- Lasher, K. P., & Faulkender, P. J.(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 Levy, B. & Langer, E.,(1994). Aging free from negative stereotypes: Successful memory in China among the American dea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6), 989–997.
- Lynch, S. M.(2000).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 McConatha, J. T., Schnell, F., Volkwein, K., Riley, L., & Leach, E.(2003). Attitudes toearld ag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young adults from the United

- states and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57(3), 203–215.
- Musick, M. A., & Wilson, J. (2003). Volunteering and depression: The rol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in different age groups. *Social science & medicine*, 56(2), 259–269.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 Rowe, J. W., & Kahn R.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Ryff. C. D.(1989).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 34–55.
- Sheard, J.(1995). *From Lady Bountiful to Active Citizen*. in Smith. J. D., Rochester. C & Hedley. R.(eds) *An Introduction of Voluntary Sector*. London: Routhledg
- Tallis, F., Eysenck, M., & Mathews, A. (1991). The role of temporal perspective and ego–relevance in the activation of worry struct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2, 909–915.
- Treaff, H. D.(1985). *Leisure Service with the Elderly*. NewYork: Times Mirror/Morby College Publishing.
- Wakins, R. E. Coates, R, & Ferroni, P.(1998).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in an elderly Australian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46(4), 319–332.

3. 인터넷 자료

네이버 두산백과, 「프로보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46601&cid=40942
&categoryId=31611](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46601&cid=40942&categoryId=31611) (2014년 4월 20일 검색)

설 문 지

ID	동의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에 관한 주제로 어르신들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 및 자원봉사활동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각 문항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어르신의 생각과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알고자 하는 설문지이므로 **솔직하게 어르신의 생각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어르신께서 응답하신 결과는 학술 연구 및 통계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특별하게 중복응답이 가능하다고 한 항목 외에는 **문항별로 반드시 하나의 답에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빠짐없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응답하신 결과는 향후 노인복지 관련 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귀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연구자: 최 현보
지도교수: 하정화
(hyunb0@naver.com)

조사명칭: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전남 및 광주 65세 이상 노인복지관이용 어르신

조사항목: 배경설문, 자원봉사, 노화불안, 자기효능감 (4부분, 총 59문항)

I. 어르신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어르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남 ②여

2. 어르신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

3. 어르신의 결혼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④사별 ⑤별거 ⑥기타 ()

4. 어르신이 믿으시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없다 ②기독교 ③불교 ④천주교 ⑤ 기타()

5. 어르신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무학 ②초등학교 중퇴 ③초등학교 졸업 ④중학교 중퇴 ⑤중학교 졸업
⑥고등학교 중퇴 ⑦고등학교 졸업 ⑧대학교 중퇴 ⑨대학교 졸업 이상

6. 어르신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나쁘다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매우 좋다

7. 어르신께서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혼자 ②배우자와 함께 ③자식들과만 함께 ④배우자와 자녀 함께
⑤기타()

8. 어르신과 함께 사는 가족은 몇 명입니까?

(명)

9. 어르신의 월수입(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위 :만원)

- ①100 미만 ②100 이상-200 미만 ③200 이상-300 미만 ④300 이상-400 미만
⑤400 이상- 500미만 ⑥500 이상

10. 어르신 가정의 월수입(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거인 소득포함)
(단위 :만원)

- ①200 미만 ②200 이상-300 미만 ③300 이상-400 미만 ④400 이상-500 미만
⑤500 이상- 600미만 ⑥600 이상

11. 어르신께서는 생활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 ①매우 어렵다 ②약간 어렵다 ③그저 그렇다 ④별로 어렵지 않다 ⑤전혀 어렵지 않다

12. 어르신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그렇다 ②아니다

Ⅱ. 어르신 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어르신은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문Ⅲ-1로 넘어가주십시오.)

2. 현재 어르신은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 ① 월 1회
- ② 월 2회
- ③ 주 1회
- ④ 주 2~3회
- ⑤ 주 4회 이상
- ⑥ 기타()

3. 자원봉사활동 시 1회에 몇 시간 활동하십니까?

- ① 1 시간
- ② 2시간
- ③ 3시간 이상
- ④ 기타

4.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_____개월

Ⅲ. 노화불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현재 어르신들의 노화에 대하여 갖고 있는 느낌들을 묻는 질문입니다. 주어진 문장을 잘 읽으신 후 그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의 5가지 응답 중에서 찾아서 V표시해주십시오.

번 호	항 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2*	나는 더 늙으면 내 주위의 친구들이 사라질까 두렵다					
3	나는 나이 많은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즐긴다.					
4*	나는 더 나이가 들면 젊게 보이기 위해 나이를 속일 거 같다.					
5*	나는 노인이 되면 만족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두렵다					
6*	나는 더 늙은 후에 건강이 몹시 걱정된다.					
7	나는 더 늙어서도 할 일이 많을 것이다.					
8*	내가 아주 늙어서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내일을 결정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9	나는 늙어가는 것에 대해 상상해도 전혀 걱정스럽지 않다.					
10	나는 노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11	나는 나이가 더 들어서도 삶이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					
12	나는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생기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렵지 않다.					
13	나는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편하다.					
14	나는 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15	나는 나이가 들어서 늙은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 두렵지 않다.					

번 호	항 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6	나는 늙어서도 내일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7 *	나는 늙으면 인생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질까 두렵다.					
18	나는 더 나이가 들어서도 내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할 것 같다.					
19	나는 나이 많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					
20 *	나는 더 나이가 들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일이 괴로울 것 같다.					

IV. 자기효능감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어르신들께서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장을 잘 읽으신 후 그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의 5가지 응답 중에서
찾아서 V표시해주십시오.

번 호	항 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계획대로 일을 해낼 수 있다.					
2*	나는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어떤 일을 처음에 잘못했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 본다.					
4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세우면 성취할 수 있다.					
5*	나는 어떤 일을 끝마치기도 전에 포기한다.					
6*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것을 겁낸다.					
7	나는 일이 너무 복잡해 보이면 해 볼 시도조차 안한다.					
8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라도, 그것을 끝마칠때까지 반드시 한다.					
9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10	새로운 어떤 일을 배우려고 시작할 때, * 처음에 성공할 것 같지 않으면 바로 포기한다.					
11	*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면 잘 해결할 수 없다.					
12	*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우려고 하지 않 는다.					
13	실패는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 뿐 이다.					
14	*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					

번 호	항 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5	나는 자신감이 있다.					
16 *	나는 무슨 일을 쉽게 포기한다.					
17 *	나는 인생에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18 *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19	친구가 보고 싶으면 친구가 와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간다.					
20 *	내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사람이 사귀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나는 사귀는 것을 금방 포기한다.					
21	첫눈에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도 해도, 나는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22 *	나는 사교적 모임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다.					
23	나는 내 사교성 덕분에 지금의 내 친구들을 사귀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Abstract

A Study of the Impact of Aging Anxiety on Self-efficacy among Elderly people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lderly Volunteer

Choi, Hyun B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importance to verify the impact of aging anxiety on self-efficacy, which is an primary internal resource for the elderly people,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his is the reason to pursue their senescent healthy life of elderly people.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research ident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volunteering to reduce aging anxiety.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of examining the impact of aging anxiety on self-efficacy,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elderly volunteers who participated in five regional welfare centers in Gwangju metropolitan areas.

This was carried out from a survey, targeting 350

elderly persons who are 65 years old or older. Out of a total of 350 survey questionnaires distributed, 347 were returned. A total of 285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fter eliminating those not fully completed. Research model was set based on *Action theory*, *Social breakdown theory* and previous studies conducted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How does the level of aging anxiety of elderly have impact on self-efficacy?
- (2) How does self-efficacy change depending on the volunteer experience 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 (3) How does the impact of aging anxiety on the self-efficacy change depending on the volunteer experience 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Key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demonstrated that the aging anxiety of elderly people impacts on self-efficacy negatively. This means that self-efficacy decreases with the level of aging anxiety greater.

Second, it is revealed that the participation level of the volunteer program has positive effects on self-efficacy. The frequency and the longevity of session exerted into the positive effect of self-efficacy. In other words, it is shown that the self-efficacy tends to increase when the elderly participants get involved in the volunteer activity.

Third, There was moderating effect. However, only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has positive moderating effects on self-efficacy. In other words, the negative impacts of aging

anxiety on the self-efficacy tend to alleviate when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s high.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empirically proved the impact of the elderly's high aging anxiety which was handled in a rather negligent manner compared to negative impact. Moreover, the raising of awareness of self-efficacy toward themselves has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this study pursued not only after the negative impact of the aging anxiety of elderly on the self-efficacy, but also after the adequate intervention and measures. As a result, future studies can have a foundation to conduct a research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is study. Moreover, the study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is possible to search for diverse social welfare level action plans to ensure the healthy senescence.

Despite these significance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may be limited in the sense that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correlations due to the use of the cross study method. Also,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study outcome since the study sample is targeted only for the elderly persons who frequently visit a welfare center in Gwang-ju. Lastly, the various elements affecting self-efficacy may contribute to the difficulty of generalization. In this respect, future studies will be need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Keywords: Elderly, Aging Anxiety, Self-efficacy, Volunteer, Moderating Effect.

Student Number: 2011-23152